

오늘 수능 성적 발표 ‘등급 블랭크’ 없을 듯

(공백)

수리 ‘가’ 1등급 6% 넘어 난이도 논란 예고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종 성적이 7일 오전 공식 발표된다.

교육부는 6일 “수능 성적이 내일 종 수험생 개인에게 전달될 예정이며 영역별 등급 조합 등 관련 내용을 공식 브리핑한다”며 “등급제 적용에 따라 변별력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으나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결론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등급제가 첫 적용된 이번 수능에서

특정 등급의 인원이 비는 ‘등급 블랭크’ 현상 등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쉽게 출제됐다는 평가를 받은 수리(자연계) 영역의 경우 1등급이 표준 비율(4%)을 벗어나 6% 이상에 이른 것으로 알려져 난이도 조절 논란을 끊임 가능성이 있다.

지난 9월 모의 수능 때 수리 1등

급이 6.17%로 표준 비율을 2.17% 상회했던 점 등에 비춰 이번 본 수능도 모의 수능과 거의 똑같은 난이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자연계 지원 수험생들이 수리 가 영역에서 1등급을 받았더라도 이른바 ‘비’를 포함한 상위권 대학 지원 과정에서 경쟁이 매우 치열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능 등급 영역별 조합 정보는 1등급에 한해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수시 합격자들 “안심 못해”

수능 기준 미달땐 불합격
작년 전남대 229명 고배

수시 2학기 모집전형에서 면접까지 합격한 수험생들도 수능 성적 발표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각 대학들이 마련한 최저 수능학력 기준에도 도달하지 않을 경우 최종적으로 불합격 처리되기 때문이다.

지난해 전남대는 모집인원 2천 93명의 11.7%인 229명, 조선대는 전체의 10%인 462명의 수시 합격자들이 고배를 마셨다.

전남대의 생명과학기술학부 수시 2학기 전형에 지원해 면접을 통과한 학생들의 경우 수리·외국어·과탐(2과목) 중 2개 영역에서 3등급을 획득해야 한다. 간호학과는 수리·외국어 중 1개 영역이, 경영·경제학부는 언어·외국어 중 1개 영

역이 각각 3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의예과의 최저 수능학력 기준은 언어·외국어·수리(가) 중 2개 영역과 과탐(2과목)에서 1등급, 수리·수학과는 수리(가)·외국어 두 개의 영역에서 2등급, 사법대(가정교육·수학교육·과학교육학부 제외)는 언어·외국어영역에서, 수학교육·과학교육학부는 수리(가)·외국어영역에서 각각 3등급 등이다.

조선대는 사범대학의 국어·영어·특수교육과 수시 2-2전형에 지원해 합격한 학생들이 언어·외국어에서 3등급 이상을 얻어야 최종 합격된다. 독어교육과는 언어·외국어 중 1개 영역에서 3등급을, 수학교육과·과학교육학부는 외국

어·수리영역 모두 3등급을, 가정교육과는 외국어·수리영역 중 1개 영역에서 3등급을 받아야 한다.

전남대의 수시 면접 합격자는 4천436명(2천592명 모집)이며, 조선대는 1단계 합격자 3명867명·면접 대상자 4천47명(2천33명 모집) 등이다.

수시 최종 합격자 발표는 전남대 16일, 조선대 14일이지만 교육부가 수능성적 공개를 앞당김에 따라 2~3일 앞당겨질 전망이다.

고려대는 예정(16일)보다 3~4 일 일찍 발표할 예정이며, 한양대는 14일에서 12일로, 성균관대는 15일에서 12일로, 발표일을 변경했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광주·전남 학교 탄산음료 사라졌다

수련시설 7곳도 판매 금지

치아 등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탄산음료가 광주·전남 학교와 수련시설에서 대부분 사라졌다.

6일 국가청소년위원회(이하 위원회)에 따르면 학교·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한 일제조사 결과, 광주·전남 중·고교 150곳(중 90, 고 60개교) 중 90%인 135개교가 교내 매점과 자판기에서 콜라·사이다·환타 등 탄산음료를 주방했다.

청소년 수련시설 7곳(광주 2·전남 5)도 탄산음료 판매 금지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반면 광주 K고교 1개교와 여수 Y 중·목포 M여고 등 전남 14곳(중 5, 고 9개교)은 여전히 탄산음료를 판매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한편 청소년위원회와 교육인적자원부는 청소년 비만율이 1998년 5.58%에서 2005년 9.25%로 급증하자 지난 해 3월부터 학교 및 청소년수련시설 등에서의 탄산음료 판매 금지를 추진하고 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위원회는 오는 2008년부터 어린이·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어린이도서관·놀이공원·자연사박물관 등에서도 탄산음료가 판매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중앙인사위원회는 6일 행정고시 최종 합격자 251명을 발표했다.

광주·전남대학에서는 전남대에서 만 김동용(26·행정학과 4년)·안수진(여·25·법학과 07년 졸업)씨 등 2명이 합격했다. 전남대는 지난해 행정고시에도 2명이 합격했다.

합격자 251명 중 여성 합격자는 49%(123명)를 차지 역대 최고 합격률을 기록했다.

직렬별 최고득점자는 ▲일반행정학 박현성(여·25) ▲재경직 태원창(30) ▲국제통상학 받은 김혜원(여·29)씨 등이다.

최종 합격자 명단은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www.csc.go.kr)와 사이버 국가 고시 센터(http://gosi.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오늘 大雪 ‘눈발’

대설(大雪)인 7일, 광주·전남 지역에는 눈발이 조금 흩날릴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7일 광주·전남 지역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은 후 점차 벗어나면서 흐리고 오전 한때 눈이나 비가 내리겠다”고 전망했다.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눈이 쌓이는 곳도 있

을 전망이다. 예상 적설량은 1~3cm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5도, 낮 최고기온은 5~9도로 다소 춥겠다. 해상에서는 서해남부 먼바다를 중심으로 파도가 2~3m로 높게 일 전망이다.

기상청은 “이번 눈이 그치고 나면 주말에는 구름이 조금 끼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다.”고 전망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목포 혜인여고 3학년 학생 50여명이 6일 전남도 농업박물관 아외 초기에서 전통 메주를 빚고 있다. 농업박물관 측은 6~8일까지 가족단위 관람객 및 대입 준비생들을 대상으로 기마술에 풍차를 넣어 간장·된장을 만드는 체험행사를 열고 있다.

/영암=최현배기자 choi@

하얀 눈송이

흐리고 한때 눈이나 비가 온 후 개겠다.

다.

주	눈/비	후	캡	1~6°C
목	눈/비	후	캡	3~7°C
포	비	후	캡	3~8°C
여	눈/비	후	캡	3~8°C
수	눈/비	후	캡	2~8°C
남	비	후	캡	2~8°C
전	눈/비	후	캡	0~7°C
남	눈/비	후	캡	1~7°C
원	눈/비	후	캡	2~7°C
화	눈/비	후	캡	0~7°C
신	눈/비	후	캡	-2~7°C
도	비	후	캡	5~6°C

서해남부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1.0~2.5m

먼바다=서~북서풍 파고 1.5~3.0m

남해서부

앞바다=서~북서풍 파고 1.0~2.0m

먼바다=서~북서풍 파고 1.5~2.5m

목포 밀물 12:46 셀룰 18:13

여수 밀물 07:49 셀룰 15:19

19:42 13:55

▲해뜸 07:27

▲해침 17:20

▲달뜸 05:06

▲달침 15: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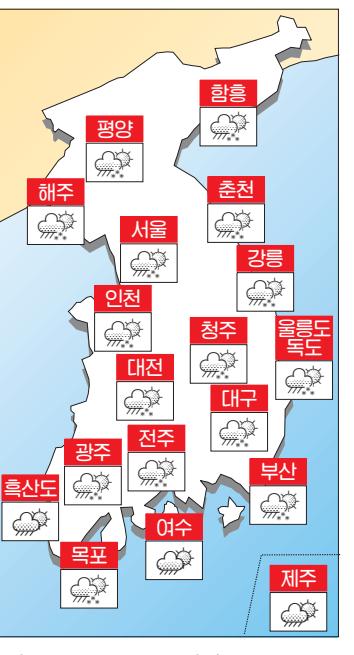
◇주간날씨

날짜	8(토)	9(일)	10(월)	11(화)	12(수)	13(목)
날씨	●	●	●	●	●	●
최저/최고	-1/8	-1/10	-1/10	2/9	1/10	-1/10

12월 7일

(음 10월 28일)

◇전국날씨



광주지검, 특별사법경찰 업무 기관장협 구성

행정법규 위반 사범 신속 대응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신상규)이 ‘검찰·특별사법경찰 업무수행 기관장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광주지검은 6일 오전 지검 상황실에서 1차 협의회를 갖고 각 기관간 법률적 지원 및 상호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협의회는 다원화된 행정법규 위반사범에 대해 신속·정확하게 대응하기 위해 특별사법업무를 수행하는 관련 기관들로 구성됐다. 구성 기관

은 광주지검을 비롯한 광주시청·전남도청·광주지방국세청·광주지방노동청·광주지방교정청·광주세관·광주시품의약품안전청·전남체신청·영산감유역환경청 등 10개 기관이다.

검찰 관계자는 “관련 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서민생활에 밀접한 행정법규 위반 사법권을 엄정하게 행사할 것”이라며 “이번 협의회 구성을 통해 지역민들의 법질서 확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고법 ‘국민 만족도’ 우수기관 선정

광주고등법원(법원장 이태운)이 ‘2007년 국민 만족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6일 광주고법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이 전국 법원 및 등기소를 대상으로 ‘국민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광주고법이 우수법원으로 선정돼 상폐와 포상금을 수상했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이번 ‘국민 만족도’ 조사는 전국 법원 및 등기소에서 재판 및 민원을 마치고 나오는 사건 당사자 또는 민원인들을 상대

로 ‘대국민 만족도 조사 설문지’를 이용한 직접 대면 조사와 전화 설문조사 등의 방식으로 이뤄졌다.

광주고법은 ▲신속한 업무처리 ▲정책성 ▲민원처리 과정의 충분한 설명 ▲전화응대 적극성 ▲친절성 ▲편의시설 및 접근 용이성 등의 평가항목에서 우수한 점수를 얻었다.

대법원의 이번 ‘국민 만족도’ 조사는 지난 2001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